

중국의 전력 사정

- 장기 정전은 생산·경영에 큰 영향 줄 듯

중국에서는 2010년 말로 끝나는 제 11차 5개년 계획(第 11次 5個年 計劃, 第十一个 五年 規劃 : 十一五)의 생 에너지 목표 달성(省 energy 目標 達成)을 위하여 공급해 주던 공업용 전력의 제한을 2010년 9 ~ 12월에 걸쳐 강화하려 하고 있다. 그래서 여름철에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 일시적인 정전 뿐 아니라 계획적이거나 제도적인 정전으로 생산 공장에서 조업을 정지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, 2010년 말까지 철저히 계속 될 것 같다. 각 방면에서 생산이 정체되거나 기업 경영에도 틀림없이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.

◎ 십일오의 생 에너지 목표 반드시 달성토록 지시

장쑤성(江蘇省)에 있는 창저우시 전력 공급 회사(常州市 電力 供給 會社)는 2010년 8월 25일 ‘창저우시의 십일오 생 에너지 목표(省 energy 目標)를 달성하기 위하여’라는 이유로 2010년 8월 27일부터 긴급 전력 사용 규제를 공고하였다. 공업 기업의 생산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형식에 의한 윤번 정전을 9 ~ 12월에 실시하려 하고 있다.

① 시구 화학 공업 기업(市區 化學 工業 企業)에는 2주간 공급하고 1주간 정전(3개월에 2억 2천만 KWh의 전력 사용량을 절약) ② 4개 야금 공장(冶金 工場)에는 2009 ~ 2010년 6월의 전력 사용 총량이 시구 전체 사회(市區 全體 社會)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율을 기본으로 하여 전력 사용 계획을 확정한다.(3억 5천만 KWh 절약) ③ 이들 이외 기업에 대하여는 9일간 공급하고 5일간 정전(9억 7천만 KWh 절약)하여 합계 15억 4천만 KWh를 절약하여 장쑤성이 창저우시에 하달한 14억 9천만 KWh 절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

◎ 국무원이 감독 조사팀 파견

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(中國 國家 發展 改革 委員會 : 發改委)가 8월 30일에 밝힌

바에 의하면 중국 국무원은 8월 26일 십일오의 생 에너지와 배출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의 전문적인 감독 사찰(監督 査察 : 督查)팀을 만들고 18개 중점 지역에 파견하였다.

이 팀은 발전 개혁 위원회, 환경 보호부 등 13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, ‘각지(各地)의 생 에너지, 배출 규제의 실시 상황, 노후 설비의 도태 진전 상황(淘汰 進展 狀況), 고에너지 소비(高energy 消費) · 고배출 산업 신규 프로젝트(高排出 産業 新規 project)의 엄격한 억제 상황’ 등 7개 항목의 검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.

파견 지역은 허베이(河北), 산시(山西), 내이멍구(內蒙古), 랴오닝(遼寧), 지린(吉林), 헤이룽장(黑龍江), 장쑤(江蘇), 저장(浙江), 산둥(山東), 허난(河南), 후난(湖南), 광둥(廣東), 광시(廣西), 하이난(海南), 쓰촨(四川), 구이저우(貴州), 칭하이(青海), 신장(新疆) 등의 18개 성(省) · 자치구(自治區)로 되어 있다.

십일오 목표는 국민 총생산(gross domestic product : GDP)에 따르는 에너지 소비량을 20% 정도 저감하여 주된 오염 배출량을 10% 줄이려는 것이다. 국무원은 2010년 5월 4일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지방 인민 정부와 관계 부서에 통지하면서, 특히 생 에너지의 현 상황은 목표와 거리가 크게 벌어져 있다고 지적하였다.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도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.

십일오 기간 중 2009년까지 4년간 GDP당 에너지 소비량 저하율은 15.6%이며 년 평균으로는 4.2%이다. 2010년 1년간에 전년 실적보다도 5.2% 더 낮추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3개월에 집중적으로 생 에너지를 추진하라는 엄명이 떨어졌다.♣